



Hello! My name is Sister Bernadette Manning. I have been a Sister of Charity for 55 years and what a ride it has been!

I was born August 3, 1943 in Homestead, PA. My father worked in the steel mill and my mother cared for the family. I was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at St. Mary Magdalene grade school. My younger brother and sister were also educated at St. Mary's. I graduated high school from Our Lady of Mercy Academy, where the Sisters of Mercy ministered.

On September 8, 1961,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novitiate. I earned a BA in sociology from Seton Hill and later a master degree in secondary counseling education from Duquesne University. For 11 years, I taught junior high school at several schools in the Diocese of Pittsburgh. In 1974, I felt called to leave the classroom and become a juvenile probation officer and a treatment supervisor of a Group Home in Pittsburgh for female offenders. From 1977-94, I was a high school personal counselor, earned certification as a pastoral counselor, and served as director and therapist at several offices of the Pittsburgh Pastoral Institute. In 1995, the Spirit guided me to establish a private practice as a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I also served for 12 years as a consultant/therapist at St. James School in Wilkinsburg. For the past 17 years, I have ministered to the sisters and staff at Caritas Christi as well as maintaining the private practice.



I am a firm believer of the healing/alternative medicine techniques of Reiki, drumming and the labyrinth. I am a Reiki Master/Teacher, a Reiki Drumming Practitioner and a Labyrinth Facilitator.



In reflecting on my life as a Sister of Charity, I believe I have been on a journey of learning, change and challenge filled with blessing, grace and gratitude. Through my various ministries, I have witnessed God's compassion, mercy and forgiveness in the hearts of others. I like to think I have embraced the teaching of Elizabeth Seton who prayed, "Blessed Guardians...be watchful. Help us to see well the grace of the moment in the



care and instruction of those under our charge. Watch over them with us."



안녕하세요! 저는 버나데트 매닝 수녀(Sister Bernadette Manning)입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55 년 동안 수도생활을 해왔어요. 정말 멋진 여정이었지요!

저는 1943 년 8 월 3 일 펜실베니아 주 홈스테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철소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았어요. 저는 우리 수녀님들이 가르쳤던 세인트 메리 막달레나 초등학교(St. Mary Magdalene grade school)를 다녔습니다. 저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역시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비의 수녀님들(the Sisters of Mercy)의 자비의 모후 아카데미 고등학교(Our Lady of Mercy Academy)를 졸업했어요.

1961 년 9 월 8 일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씨튼 힐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고 후에 듀케인 대학(Duquesne University) 에서 중등상담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 년동안 피츠버그 교구에 있는 몇몇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1974 년 저는 교직을 떠나 청소년 보호 관찰관과 여성 범죄자들을 위한 피츠버그의 그룹 홈에서 치료전문가 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1977 부터 1994 년까지는 고등학교의 개인 상담 전문가로 일했고 교구 상담사로서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피츠버그 사목 연구소의 몇 분야에서 책임자와 치료사로 봉사했습니다. 1955 년 성령께서는 저를 전문 상담사로 개인상담을 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또한 12 년 동안 윌킨스버그의 세인트 제임스 학교(St. James School in Wilkinsburg)에서 컨설턴트이자 치료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 년 동안 카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수녀님들에게 봉사하며 스텝으로 일했고 개인 상담도 했습니다.



저는 레이키 기치료(Reiki), 타악기 치료, 미로의 기도와 같은 치료 요법과 대체의학을 믿습니다. 저는 레이키 기치료 전문가이며 레이키 음악 치료사, 미로의 기도 촉진자 입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제 삶을 돌아보면 저의 삶은 배움과 변화, 축복으로 가득한 도전, 은총과 감사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도직을 통해 저는 다른 이들의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던 엘리사벳 씨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복되신 수호 천사들이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돌보고 가르치는 이들 안에서 순간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그들을 보호주소서."

